

**사랑하는 기도의 친구 여러분,**

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에두아르드를 두 번 만나게 해주신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처음에는 아슈켈론의 **신규 이민자로**, 그 다음에는 텔아비브의 **노숙 중독자**로 말입니다. 현재 알렉산더는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. 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!

### **알렉산더의 이야기**

저는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. 학교에 다니고 운동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14살이었을 때, 저는 처음으로 마약을 시도했고, 17살이 되었을 때 이미 심하게 중독되었습니다. 20살 때 저는 이미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두었고, 아내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. 여러 번 약물을 끊으려고 시도하며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,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

22살 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. 저는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, 아내가 잘 돌봐준 덕에(저를 떠나지 않았어요)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저는 아내의 넷째 아이와 같았죠. 1년 동안 마약에 손을 안 대고 지냈지만 기동성이 생기자 다시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곧 심한 남용을 했습니다.

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사하기로 2021년에 아내와 결정했습니다. 저희는 제가 그곳에서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, 도착했을 때, 저는 여기서 훨씬 더 빨리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마약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. 저의 약물 남용은 1년 동안 계속되었고, 결국 아내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.

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, 저희는 아슈켈론의 해변 근처(함께 살던 곳)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그곳에 있을 때, 한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. "새로운 이민자세요?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" 그의 이름은 에두아르드였고, 같은 날 저녁 그는 음식 바구니를 아슈켈론에 있는 저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.

시간이 좀 지나 텔아비브로 저는 향했습니다. 그곳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. 도착했을 때, 저는 절대 도망칠 수 없는 끔찍한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벤치에서 자며 도둑질을 했고, 면도도 이발도 안 했습니다.

어느날 저의 길거리 친구들은 근처에 있는 기독교 급식소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. 저는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, 배가 고파서 갔습니다. 몇몇 사람들이 식사를 나눠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. 한 남자는 기타를 치고 있었고, 다른 남자들은 방문객들과 조심스럽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. 한 남자가 바로 다가와 깨끗한 옷과 함께 팔에 난 굵은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.

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가 저에게 와서 뜨거운 차 한 잔을 권했는데, 갑자기 제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. 아슈켈론에서 만났던 에두아르드였습니다!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, 저는 그 만남을 상기시켰고 마침내 매우 기뻐했습니다. 그는 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말했고, 저에게 그의 재활 센터에 가자고 초대했을 때, 저는 가고 싶다고 100% 확신했습니다!

벌써 한 달 반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,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진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. 아내는 기뻐하며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. 최근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, 저는 아비브 센터의 필요성을 느낍니다. 텔아비브 남쪽의 깊고 어두운 늪 한가운데에는 지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작은 섬이 있습니다. 저는 그곳에서 섬기고 희망 없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저희를 버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

### 기타 기도 제목

저희 남성 재활원의 환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고, 특히 지난해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던 **알렉세이**가 복음에 매우 열려 있었지만 자신이 충분히 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조기 퇴소한 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. 그는 약 두 달 동안 중독과 무관하게 살 수 있었지만, 그 후 알콜로 돌아갔고 직업을 잃었으며 재활원으로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알렉세이의 구원과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.

알렉세이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살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하고, 일찍 여성 보호소를 떠났다가, 몇 주 후 슬프게도 술로 돌아온 **마야\***를 위해 기도해주세요. 이제 쉼터로 돌아와 중독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

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!

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.  
도브, 올가 그리고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



In Aviv Center



A group of Aviv Center volunteers getting the tables ready for their shift in the soup kitchen



A birthday celebration in the rehab



Praying for an addict on Tel Aviv street